

Daily Auto Check

2022. 4. 18 (Mon)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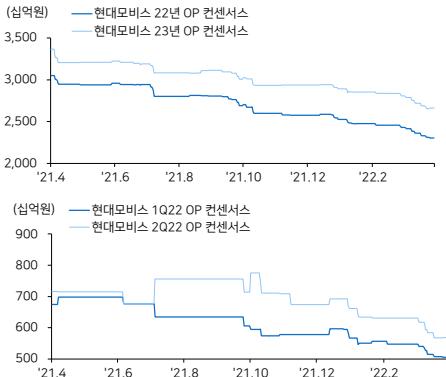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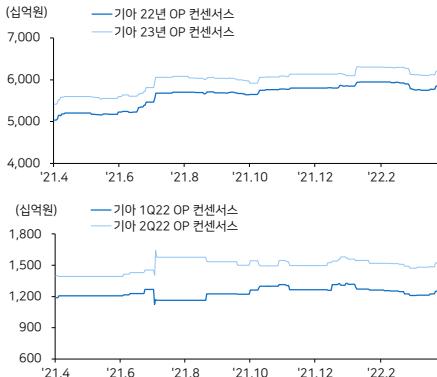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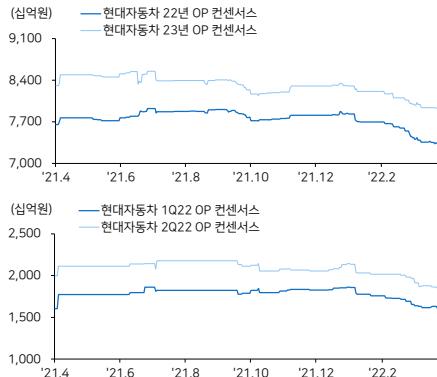
RA 장재혁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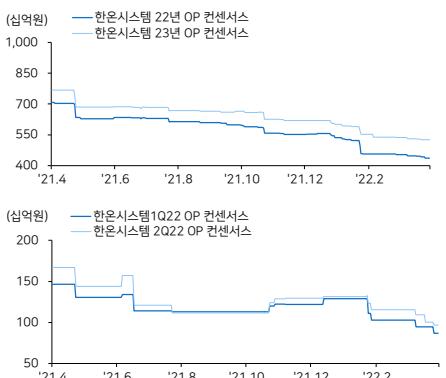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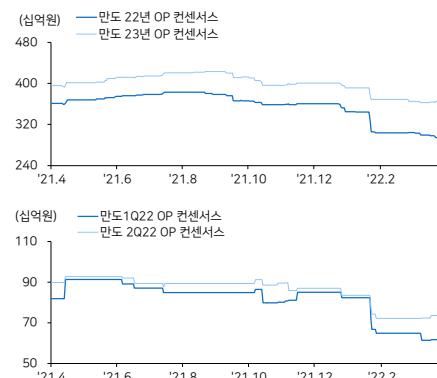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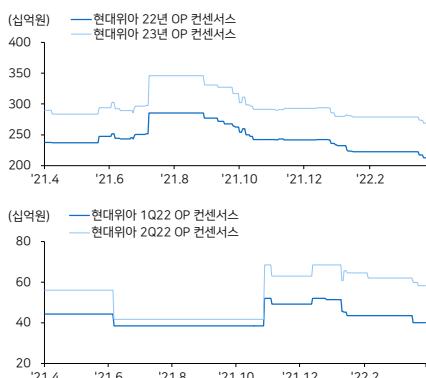
jaehyeok.jang@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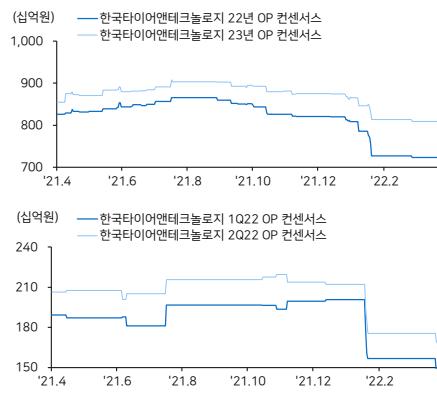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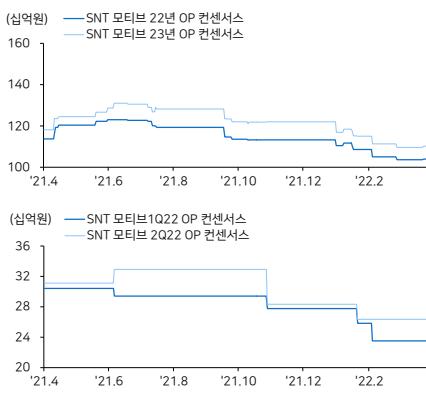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1년새 6배 오른 리튬...양극재값 폭등에 전기차도 연쇄 충격 (매일경제)

SNE리서치에 따르면 텐산리튬 가격이 2020년 11월 대비 올해 3월 1,086%, 수산화리튬 가격은 910% 상승함. 이에 배터리업체들이 납품가격을 올리면서 전기차 업계의 원가가 상승하는 중. 향후 양극재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

<https://bit.ly/3xv4XZ7>

中 상하이 봉쇄에 실적 '빨간불' 들어온 현대차...장재훈호, '매출 확대' 전략 성공할까 (아시아투데이)

중국 상하이 봉쇄 기간이 길어지면서 현지 비오너리·헬레스로부터 차량 생산에 필요한 에어백 컨트롤 유닛(ACU)과 전자식 오일펌프(EOP)을 공급 받은 현대차의 공급망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됨.

<https://bit.ly/3jk7MNO>

Autos rebound fuels U.S. manufacturing output gain in March (Reuters)

미국 자동차/부품 생산량이 3월 yoy +7.8% 증가하면서 반등에 성공하여, 지난 10월 이후 최대의 증가폭을 기록함. 이에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량이 급감했던 시기와 지난 생산 회복에 들어서는 구간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등장.

<https://reut.rs/37UN3nR>

EV industry seen shifting to 800-volt architectures (Automotive News)

대부분 업체들은 전기차의 800V 아케이저가 향후 10년간 지배적인 기술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이는 더 낮은 전류에서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 배터리 소형화, 충전시간 단축, 주행거리 상향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https://bit.ly/38R76E1>

미래차 시대 갈 길 바쁜 현대차, 노조는 "파업해서라도 요구안 쟁취" (전자신문)

현대차 노조가 지난달 말 대의원 이상 확대 간부 404명을 대상으로 사측과 올해 단체협약 준비를 위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6%가 파업에 긍정 입장인 것으로 나타남. 노조는 신입사원 충원, 정년 연장 등의 요구 입장을 유지 중.

<https://bit.ly/30gylrT>

中 전기차 글리...배후엔 700만대 실시간 '빅데이터' (중앙일보)

전 중국을 주행 중인 700만대 실시간으로 쏟아내는 빅데이터가 중국 전기차 산업의 숨겨진 무기인 것으로 나타남. 중국은 전기차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하는 플랫폼을 보조금과 연계시켜 미래 산업용 데이터로 가공 중.

<https://bit.ly/30bCzb4>

Renowned Apple analyst Ming-Chi Kuo reveals details of Tesla Shanghai plant's resumption plan (CNEV Post)

애플 애널리스트로 유명한 Ming-Chi Kuo는 Tesla의 기가 상하이 생산 재개가 이르면 4월 18일 1교대(봉쇄 전 2교대)로 시행될 수 있다고 트윗함. 또한 현재 부품 재고는 2.5주 수준인 것으로 알려짐.

<https://bit.ly/3jL8p9N>

Tesla now doesn't let anyone buy their car after lease is over as used car prices are skyrocketing (electrek)

Tesla 종고차 가격이 상승하면서 4월 15일 이후 리스한 차량의 경우 리스 종료 시 구매하는 옵션이 없어짐. 과거 Tesla는 차율주행 차량 호출 네트워크에서 차량 사용을 이유로 리스 만기 시 구매 옵션을 제거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https://bit.ly/36lIALA>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